

# 2025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12.23.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9/10	6	1	16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3	-	1	10	-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 다. 전월(1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b>&lt;자살 예방 관련 보도&gt;</b> 한국이 OECD 국가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다큐나 보도를 통해 관련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자살 관련 보도는 준칙이 있어서 뉴스에서 다루기는 까다롭고 생명 존중 캠페인 진행이 적합해 보임. 자체적으로 공익적인 자살 예방 캠페인을 제작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자살 예방 캠페인을 방송할 예정임. <b>&lt;25. 12월 조치&gt;</b>	'25.11월
보도	<b>&lt;탄소 중립 관련 보도&gt;</b> '시시각각' 과 '보도특집' 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시대에 대해 잘 다뤄주었는데 향후 탄소감소와 에너지에 대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람	수도권 반도체 공장 등이 총남권으로 오게 되면 송전 선로가 길지 않게 공급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에너지의 지역 분산화에 집중해서 관련 뉴스나 제작물을 추진할 예정임 <b>&lt;25. 12월 조치&gt;</b>	'25.11월
보도	<b>&lt;보도 자막 오류&gt;</b> 에너지 관련 보도에서 호주 과학 아카데미에 방문해 안내해 주는 분의 인터뷰 장면이 있었는데 이름이 소속기관명으로 자막이 잘못 기재됐음. 수정이 필요해 보임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획 뉴스의 자막 오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살펴보겠음 <b>&lt;25. 12월 조치&gt;</b>	'25.11월
교양	<b>&lt;스포츠 관련 다큐&gt;</b> 스포츠가 지역경제나 지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해서 담았으면 좋겠다고, 대전에 특화된 스포츠를 중심으로 시리즈물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음	내년 초 야구 관련 다큐 형태로 '스포츠 특별시 대전'(가제)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지역과 스포츠가 어떻게 연결돼서 지역 정체성이 되는지 분석해 보겠음 <b>&lt;26년 조치 예정&gt;</b>	'25.11월
교양	<b>&lt;문화예술계 관련 방송&gt;</b> 지난주에 개최한 K아트페어는 지역의 큰 이벤트 행사인데 대전MBC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음. 문화예술계 소식도 많이 다뤄주길 바람	<오늘M>에서 문화 예술관련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음. 아이템을 다루는데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양하게 다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b>&lt;25. 12월 조치&gt;</b>	'25.11월
교양	<b>&lt;다큐멘터리 주제 선정 관련&gt;</b>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더 퍼퍼스' 가 곧 방영될 예정인데 재미있을 것 같음. 다큐멘터리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함	편성국내에서 회의를 통해 제작자들로부터 기획안을 받고, 편성은 기획안을 선정해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지원 사업에 응모하고 선정이 되면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하게 됨 <b>&lt;25. 12월 조치&gt;</b>	'25.11월
교양	<b>&lt;시티 인 더 가든 내용 관련&gt;</b> 소재 선정도 좋았고 내용이나 진행도 매끄러웠지만 대부분의 장면이 세종이나 범지기 10단지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대전지역도 소개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시티 인 더 가든 : 정원, 도시를 품다>는 세종시의 제작 협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정원에 대한 공간적인 한계점이 있었음. <b>&lt;의견 참고&gt;</b>	'25.11월
기타	<b>&lt;홈페이지 화면 관련&gt;</b>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대전MBC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할 때 메뉴 톨바가 가려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개편 후에 빠진 것들이 없나 세세하게 다시 챙겨주길 바람	홈페이지 개편 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음. 메뉴 톨바 문제는 전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놓은 상황인데 다시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음 <b>&lt;25. 12월 조치&gt;</b>	'25.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1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심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연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김밥 프랜차이즈 관련 보도> 김밥 프랜차이즈 문제를 보도하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문제까지 다루고 정부차원의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본사의 해명과 상생의 의지도 들었음. 양쪽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뤄주길 바라고 지속적인 관찰 보도도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송전선로 관련 보도>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충남 지역은 고오염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음. 초고압 송전선로의 위험성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해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태안화력 관련 보도> 태안화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도하고 있음에도 이번 달에 또 사고가 났음. 협력사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좀 더 강력한 심층 보도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독립기념관장 관련 보도> 독립기념관장 문제는 대전MBC가 오랫동안 보도해 오고 있는데 문제 해결의 끝이 거의 다 온 것 같음. 끝까지 보도를 잘 해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대리기사 사망사건 관련 보도> 대리기사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른 대리기사들의 피해사례도 같이 보도해 주었음. 기사와 손님간에 갈등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잘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행정통합 관련 보도>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꾸준히 다뤄주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고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집이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나잇 출연자 관련> 천정한 문화기획자와 이광복 화가 편을 보면서 지역성과 함께 삶의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함.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보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확장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더 페퍼스 관련 > 후반부로 갈수록 K-POP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었는데 매운맛에 대한 주제가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초반에 4부에 대한 기획 의도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연중캠페인 관련> 12월에 연중캠페인 <당신은 000입니다>에서 평생교육원 강사분의 얘기를 통해 한사람 한사람이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좋았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기타	<‘아나왓슈’ 제작 관련 > 유튜브 채널에서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아나왓슈’를 봤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역밀착형으로 꾸준히 제작해 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 2025년 1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9명)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옥 위원, 최승인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오늘은 위원님 10분 중에 9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인데요. 자료화면 불만 1건, 뉴스내용 불만 1건, 기타 문의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겨울이 시작됐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올해 마지막 회의에 9분이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과 인사 작업을 하고 있고, 방송지표와 캠페인도 정했습니다. 방송지표는 '지역을 잇다 마음을 잇다'로 정했고, 연중캠페인은 '함께하면 든든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스팟을 통해 많이 소개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년 동안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다음은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연말이라서 다들 바쁠실 텐데 이렇게 높은 90%의 출석률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평가상을 받은 <애들은 가라 1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백강희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부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백강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백강희 위원

<더 페퍼스>를 재미있게 봤는데요. 대전에서 매운 음식을 판매하는 유명한 음식점도 나와서 더욱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고증을 활용해서 매운맛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본 것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K-pop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확대되는 것 같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운맛에 대한 선호가 K-pop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제가 다소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에서 시작할 때 <더 페퍼스>의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기획 의도를 갖고 총 4부에 걸쳐서 방송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방송을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전MBC가 김밥 프랜차이즈 관련 단독 보도를 하면서 내용이 잘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관련 보도들이 이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프랜차이즈 문제들도 같이 다루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지적해 주고 마무리한 점이 좋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본사의 해명과 상생의 의지도 들었는데요.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 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MBC가 태안화력 관련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망은 없었지만 협력사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전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심층 보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전선로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초고압 송전선로라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충남 지역은 과거에 고오염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그 피해를 감당해 왔던 곳인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지역으로 다 가고 있고 안 좋은 혐오 시설만 충남 대전 지역에 포함된다는 게 계속 우리가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초고압 송전 선로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깊이 보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고 정말 우리한테 문제가 없는 건지 심층 보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문제는 대전MBC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도해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의 끝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대전MBC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잘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사망 사건이 지난달에 보도되고 12월에도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 사건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MBC가 대리기사를 하는 다른 분들의 피해 사례들을 함께 인터뷰해서 내보내서 그 분들이 힘든 고초를 겪고 있구나 하는 점을 잘 보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속 보도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와 대리를 배치해 주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과의 관계 등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기사가 손님과 갈등이 있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잘 다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섬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섬교 위원  
노무현 재단 후원의 밤 행사가 대전MBC 공개홀에서 열렸는데 공영 방송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성격인지 궁금했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와 캠페인을 자주 보는데요. 이번에 <당신은 ○○○입니다>에서 평생교육원 강사분이 나오셨습니다. 평생교육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작은 부분까지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어른들에게 '지금 시작하실 때다, 지금도 꿈을 가질 수 있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라는 메시지를 대전MBC를 통해 전달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페퍼스>를 두 번 봤는데 백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부에서 K-pop에 너무 집중하면서 <더 페퍼스>의 중심적인 스토리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22일에 방송된 <천년의 뿌리, 새로운 여정>은 금산 인삼이 현재 K-문화와 함께 베트남으로도 수출되고, 전 세계에 인삼이 퍼지는 이유를 집약적으로 잘 설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파닉스 진생, 만병통치약, 그리고 베트남에서 왜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하는지 몰랐고, 호찌민이 인삼을 먹고 회복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삼이라는 제품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박항서 감독 이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도 와 닿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삼과 관련한 지식이나 스토리를 알게 해주고, 대한민국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베 문화 우정의 거리축제'나 인삼이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잘 풀어주셔서 아이들이 보기에, 또 인삼을 공부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영상을 찾을 수 없었는데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 MBC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애들은 가라 1호점> 1부 태안 편을 보면서 서천 편은 뭔가 지역색이 다르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요.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그 곳에 초대된 분들의 스토리로 짧은 연극을 해주고 그 걸 보면서 초대된 상인들이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몰입이 되게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조명하면서 상인들의 삶을 잘 재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가 초대되고, 남자분도 초대되고, 다양한 분들이 초대가 됐는데요. 상인분들이 '시장에서 일만하고, 즐길 거리가 없다. 몸을 흔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무음 댄스나 노래방, 디지털 운동장이라고 해서 넓은 곳에서 어른들이 즐길 수 없었던 게임을 소개해 주면서 참여형 콘텐츠로 진행됐습니다. 서천 시민들이 에너지를 받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서천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을 한다면 상인들이 예전에 화제가 나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중간 중간에 하셨는데 짧게라도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지, 지역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짧게라도 자막으로 넣어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천에 선물을 준 의미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내컷> 2편을 봤습니다. 문화기획자 천정한 님과 사과를 그리는 화가 이광복 님이었는데요. 이광복 님은 원래 공주 분인데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으로 조명됐고, 특히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사과를 그리게 된 사연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십 년 살면서 그리움과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사과만 그렸다고 하는데 그 화가를 보면서 그 분이 공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으로 작품을 담아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지역성과 함께 그 삶에 대한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기획자 천정한 님은 지역에서 책도 팔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지역사회가 소멸해 가는데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 소

통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분들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확장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네 책방과 전시를 연결한다든지, 지역 문화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포인트를 하나 주면, 예를 들어 공주 지역이면 공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더 모이게 하는 실천성이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선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선혜 위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 현안이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 관련 이슈일 텐데요. 대전MBC 측에서도 뉴스폭지나 시사각각에서 꾸준히 다뤄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워서 대전MBC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시리즈로 꾸준히 특집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페퍼스>에 관련된 의견인데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가 봅니다. 저는 단순히 음식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한류랑 연결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을 소개한다기보다는 문화로의 아이টে를 확장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게 유튜브 채널에 아나운서가 왕관식당 다녀온 게 올라왔는데요. 레거시 미디어일수록 오히려 이런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밀착형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지역 시민들과의 스킨십도 돼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12월 4일자 <오늘M>에서 '한국 베트남을 잇는 연대 하모니'가 방영됐는데요. 한국 베트남 수교 33주년을 기념해서 대전MBC 문화예술단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함께 교류하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돼서 알려진다는 걸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인생내컷>에서 문화기획자 천정한 선생님 편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원래 천정한 선생님이 책을 많이 발간했고, 개인적으로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대전MBC를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에 밀착된, 지역을 담은 책들을 발간하고 또 로컬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대전MBC가 <책으로 잇고 사람으로 이어가다>라는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M>에서도 베트남을 잇고, <인생내컷>에서도 책으로 잇고 사람으로 이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잇는다'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서 왔습니다. 근데 대전MBC 내년도 방송지표가 "지역을 잇다 마음을 잇다"라고 하니깐 'MBC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방송이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문선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 충남 행정통합 전반과 과제를 <시시각각> 주제로 다뤄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판도가 바뀌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공영 방송이 방송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막상 위원으로 들어와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으로서 자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제 스스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함께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애들은 가라 1호점> 서천 특화 시장 편을 1편부터 5편까지 봤습니다. 재연 극장 하시는 분들의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작년에 서천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 분들이 3일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장사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항상 웃고 있고 그 웃음에 진심을 담아주곤 하지만 진정 어린 웃음을 주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근데 노래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 분들이 부르고 싶은 18번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가슴이 많이 미어졌습니다.

대전 축구가 매년 꼴찌를 했고 2부 리그로 넘어가면서 하나대전시티즌에서 하나시티즌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 2등을 해서 감회가 깊었고 내년에는 통합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와 전략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행정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과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시각각>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 프랜차이즈 보도를 봤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뤄주시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입장도 더 길게 현상에 맞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이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승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특집 다큐멘터리 <천년의 뿌리, 새로운 여정>을 봤습니다. 인삼이라는 게 귀하고 값진 것인데 요즘 세대한테는 흔한 것들로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 인삼을 주제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 뿌리와 여정이라는 콘셉트로 잘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인삼의 역사성을 뿌리로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한 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정으로 잘 담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삼에 대한 개념적인 해설보다 역사적인 상품성, 그리고 상품에 관련된 역사성을 교차해서 많이 반영해 줘서 일종의 문화유산으로까지 인식될 수 있도록 담아 주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레이션과 화면이 편안했고 다양한 관계자들과 학계, 시민들의 인터뷰, 특히 현지 베트남 시민들의 인터뷰가 더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로서 집중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K-푸드가 문화적 유산이나 가치 있는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뉴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12월 20일 지역 자활센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부분을 보도해 주셨는데, 이 자활 지원 사업이 근로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늘 매출과 사회 참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갈립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사회복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회가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자활센터에 대한 시선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분히 복지적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급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시장과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에서 밀려서 사회적인 우대가 결국 가장 큰 관건이 되는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는데요. 이번에 급여와 관련된 부분 외에도 이런 자활 사업에 대한 사회 재참여라든지 재분배 관련된 부분을 조명해 주셔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이번에 꿈돌이 호두과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정 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있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열악한 재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해서 기업 단체 후원금으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도와주는 후원 단체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하나가 제대로 바로서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결말이 날까 궁금한데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제가 봤을 때 양측 모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는 가맹점 분들이 입고,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후속 보도가 이어질 때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담아주시고 지역사회에서 지역 기반 업체들이 올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사랑의 열매 공동 모금 활동에 대해 뉴스 말미에 관련 내용을 홍보해 주시는데요. 대전에만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59개 정도이고, 노인 장애인을 별도로 해도 수많은 단체들이 모금 기능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금회가 하고 있는 공적인 모금도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자원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겨울나기 여름나기가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과거 같지 않고, 특히 후원 개발이라든지 봉사활동의 시장은 회복이 더딤니다. 가능하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에 대한 붐이 일어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애써주신 대전MBC 임직원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오늘 특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MBC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우선 김밥 프랜차이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도 과정에서 일일이 이런 지적을 할 경우 김밥 프랜차이즈 법무팀의 의견도 같이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대략 10쪽지 정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쪽의 이야기를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축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맹점주들과 상생의 노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정리가 돼서 완결이 됐는데 상생의 노력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후속 보도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태안 화력 보도 관련해서는 마침 조금 전 태안 화력의 모기업인 한국서부발전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안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안전관리에 2조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대전MBC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이번 조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문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산 정책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맞물려서 저희 지역과 같이 검토해야 될 지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데 보도국 기자들과 추가 취재 여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관련 보도는 광복절에 경축사가 미리 제공 됐었고, 그걸 보니까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일단 보훈부의 감사 결과가 통보됐고, 이의 제기 신청기간이 다음 달 초에 끝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임 절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리기사 사망 사건 보도는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오후 3-4시경 들어서서 급박하게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림도 많이 부족했지만 일단 보도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짚었던 건 저희 경찰팀 기자들이 순발력이 좋아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문제를 접할 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항상 짚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통합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행정통합을 다뤘을 때는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 기사까지 내보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급선회한 상황입니다. 내년 2월, 3월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방송을 통한 토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통합 사례에 대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현지 취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나왓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도국 내에 디지털 콘텐츠룸을 신설합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이 <아나왓슈>를 통해 채널 홍보를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더 고도화해서 새로운 콘텐츠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엔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실험들을 할 예정인데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센터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난 게 가능하다면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자활센터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매대에서 기획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많

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경청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온도가 점점 따뜻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더 페퍼스>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열린TV 미디어 리뷰>라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대전MBC가 한 해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들을 총 정리하는 미디어 비평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백강희 교수님을 포함해서 패널 세 분이 출연하셨는데 세 분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K-POP, K-문화와 매운맛의 연결고리가 약한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고, 이섭교 위원님도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선혜 위원님은 이와 다른 의견을 주셔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페퍼스>가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의 방대한 이야기들을 4부작으로 펼쳐놓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논리적 연결고리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강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매운맛이라는 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그것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K푸드가 매운맛이 중심이 아닌 음식들도 많이 있음에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매운 맛으로 연결고리로 가져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자인 윤성희 국장이 한 달간의 장기 출장으로 해외 6개국을 돌면서 고생해서 만든 콘텐츠인데요. 저희가 해외 판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열린 TV 미디어 리뷰>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1호점> 서천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연극 재연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원래 <애들은 가라 1호점>은 기획은 1월부터, 촬영은 여름부터 했고, 촬영을 다 끝내놓고 편집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팝업스토어를 외부 협찬으로 유치하기 위해 MZ문화로 대표되는 편의점과 올리브영에 협찬 제안을 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쪼개서 세트도 만들고 물품도 구매해서 채워가면서 규모를 줄여서 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처음 의도는 어르신들이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뷰티도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작은 규모의 맞춤형 팝업스토어로 기획이 됐고, 거기에 다른 장치들을 많이 보완해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을 보여주는 부분에 더 집중했고, 해녀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면서 말씀하신 연극을 통해 그분들의 삶도 재현하고, 또 AI 영상으로 젊은 시절 모습도 재현하게 되면서 오히려 감동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내컷>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전 총복에 계신 분들만 계속 제작하다 보니 뭔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문화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을 확대해서 다른 지역을 섭외해서 더 다양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M> 베트남 연대의 하모니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삼 다크 제작팀과 동시에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서 제작을 했습니다. 외주팀은 인삼 다크를 촬영하고 저희 담당PD는 <오늘M> 촬영을 해서 15분짜리 아이টে็ม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기획 자체는 전략기획실에서 했지만 편성국에서 같이 협력한 부분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협력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왔슈> 관련인데요. 유튜브는 보도국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아나운서 콘텐츠는 한주희, 남유식, 유지은 아나운서 3명이 시간을 쪼개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후에 보도국 유튜브팀에서 편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역 아나운서들이 본인 장비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만들고, 또 보도국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협력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공익캠페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연중 캠페인이 '당신이 ○○○입니다'인데 지금 '당신이 한 줄기 빛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빛대상 수상자들에 대해 시상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분들의 우수한 공적을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에 4편이 집중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곧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중캠페인은 '함께하면 든든합니다'로 정했고, 한 달에 한 번 소재를 바꿔가면서 캠페인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올 연초에 '당신은 소중한입니다'로 시작했다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말에 방송이 집중됐는데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내년에도 시리즈로 잘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베트남 인삼 관련 다크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래전에 고려인삼 세계화 사업으로 베트남 시장을 먼저 개척한 바가 있는데 중간에 맥이 끊겼다가 이번에 입찰 사업을 수주해서 금산군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한베거리 축제장에서 금산인삼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려인삼 사업을 금산인삼 세계화 사업으로 확장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년소녀 합창단도 초청받아서 베트남 대사관 공연도 했고 베트남 국립 음악대학에서 현지 학생들과 합동 공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표 경영국장

이섬교 위원님 말씀하신 노무현 재단 후원의 밤 행사는 방송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저희가

직접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재단에서 대관 요청이 와서 공개홀을 대관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시 대관료를 받고 대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김욱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욱 위원장

오늘도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대전MBC 답변도 좋았습니다. 베트남 행사도 좋았고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진종재 사장

베트남 행사는 작게는 농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서 지역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도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만큼 어긋나지 않게 좋은 지역 방송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1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